



필리핀한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4 Issue | Vol. 57

SPECIAL POINTS OF INTEREST

- BSP, 7월 인플레이션 4%-4.8%로 예상
—page 1-2
- 파스크왈, 무역 장관 사임
—page 2-3
- BPO와 기업들이 POGO 공간을 인수할 예정 —page 3-4
- 필리핀, 태풍 중 주식 거래 지속할 준비 미비 — 분석가들 — page 4-5
- 미국 여론이 어떻게 되든,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가까운 미래에 보이지 않는다 — AmCham — page 5-6
- 국회,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승인 — page 6

BSP, 7월 인플레이션 4%-4.8%로 예상

August 01,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수요일 7개월 연속 목표 범위 내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7월에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월간 전망에 따르면 7월 인플레이션은 4%-4.8% 범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는 6월의 3.7%보다 빠른 것이다. 2023년 7월 인플레이션은 4.7%였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4% 목표 범위 내에 있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7월에 일시적으로 목표 범위를 초과한 후 8월까지 목표 범위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이전에 밝혔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8월 6일에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Different varieties of rice are displayed at a public market in Sampaloc, Manila, July 14, 2024. — PHILIPPINE STAR/EDD GUMBAN

“전기 요금 상승과 채소, 고기, 과일과 같은 농산물 가격 인상, 그리고 국내 유가 상승이 이달의 주요 상승 압력 요인입니다,”라고 BSP는 말했습니다.

7월에 Manila Electric Co.가 서비스하는 가구는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2.1496 페소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가구의 전기 요금은 전월의 킬로와트시당 9.4516 페소에서 11.6012 페소로 인상되었습니다.

7월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0 페소 순증가로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디젤과 등유는 각각 리터당 0.90 페소와 1.70 페소의 순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쌀과 과일 가격 하락, 그리고 페소 가치 상승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BSP는 말했습니다.

7월 말 기준 잘 도정된 쌀 1킬로그램의 평균 가격은 6월 말의 48-55 페소에서 45-55 페소로, 일반 도정 쌀은 45-52 페소에서 45-50 페소로 하락했습니다.

쌀 인플레이션은 3개월 연속 완화되며, 6월에는 22.5%로 전달의 23%에서 감소했습니다.

페소 가치는 7월 31일 달러당 58.365 페소로 상승하여 6월 28일의 58.61 페소 마감에서 24.5 센타보 강세를 보였습니다.

목표 내에?

한편,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2-4%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에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목표 범위 내에 들며 3.8%에 도달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가격 압력이 더 유리한 속도로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Metropolitan Bank & Trust Co. (Metrobank)의 수석 경제학자 Nicholas Antonio T. Mapa는 은행의 최신 Wealth Insights 보고서에서 말했습니다.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경제학자 Michael L. Ricafort는 인플레이션이 4%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Ricafort 씨는 태풍 카리나와 남서 몬순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Cont. page 2]

BSP, 7월 인플레이션 4%-4.8%로 예상*[Cont. from page 1]*

“현실적으로, 물류가 정상화될 때까지 큰 타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농업에 일부 피해가 발생하면 식품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농업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태풍과 남서 몬순으로 인한 농업 피해는 7월 31일 기준 12억 1천만 페소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작물은 쌀로, 피해의 절반 이상(52.47%)인 6억 3천 517만 페소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Mapa 씨는 9월까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약 2%까지 둔화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큰 감소는 주로 정부의 관세 인하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바구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6월에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8년까지 쌀 수입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쌀 가격 하락과 유리한 기저 효과의 결합은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하단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추세는 보다 안정적인 가격 환경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Mapa 씨는 덧붙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에 따라 중앙은행이 곧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SP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통화 정책 변화는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Mapa 씨는 말했습니다.

Ricafort 씨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 머무를 경우 통화위원회가 8월 15일 회의에서 25 베이스 포인트(bps)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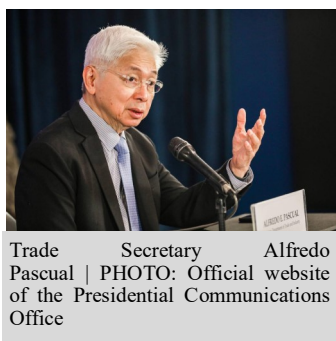
통화위원회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차입 비용을 총 450bps 인상하여 기준 금리를 17년 만에 최고치인 6.5%로 끌어올렸습니다.

BSP 총재 Eli M. Remolona Jr.는 8월까지 총 50bps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8/01/611492/bsp-sees-july-inflation-at-4-4-8/>

파스크왈, 무역 장관 사임

July 31, 2024 | Zacarian Sarao - Reporter / @zacariansINQ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무역 장관 알프레도 파스크왈이 그의 직에서 사임했다고 궁정이 수요일에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사무소(PCO)에 따르면, 파스크왈은 민간 부문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임은 8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PCO는 또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말라카냥에서의 회의 후 파스크왈의 사임을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MSME(마이크로, 소규모, 중간 규모 기업)에 대한 그의 집중은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이었으며, 그 정책의 결실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를 잃게 되어 유감이지만, 그가 민간 부문으로 돌아갈 시점이라고 결정한 것을 존중합니다.”라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PCO에 인용되어 말했습니다.

후임자는 아직 지명되지 않았지만, PCO는 파스크왈의 후임자를 찾는 작업이 “부서의 이니셔티브의 원활한 전환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스크왈은 자신이 DTI(무역산업부) 수장으로서 사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Cont. page 3]*

Pascual resigns as trade secretary

[Cont. from page 2]

“많은 고민 끝에 민간 부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역할은 제 전문성과 경험을 계속 기여하면서 가족과 함께 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라고 그의 성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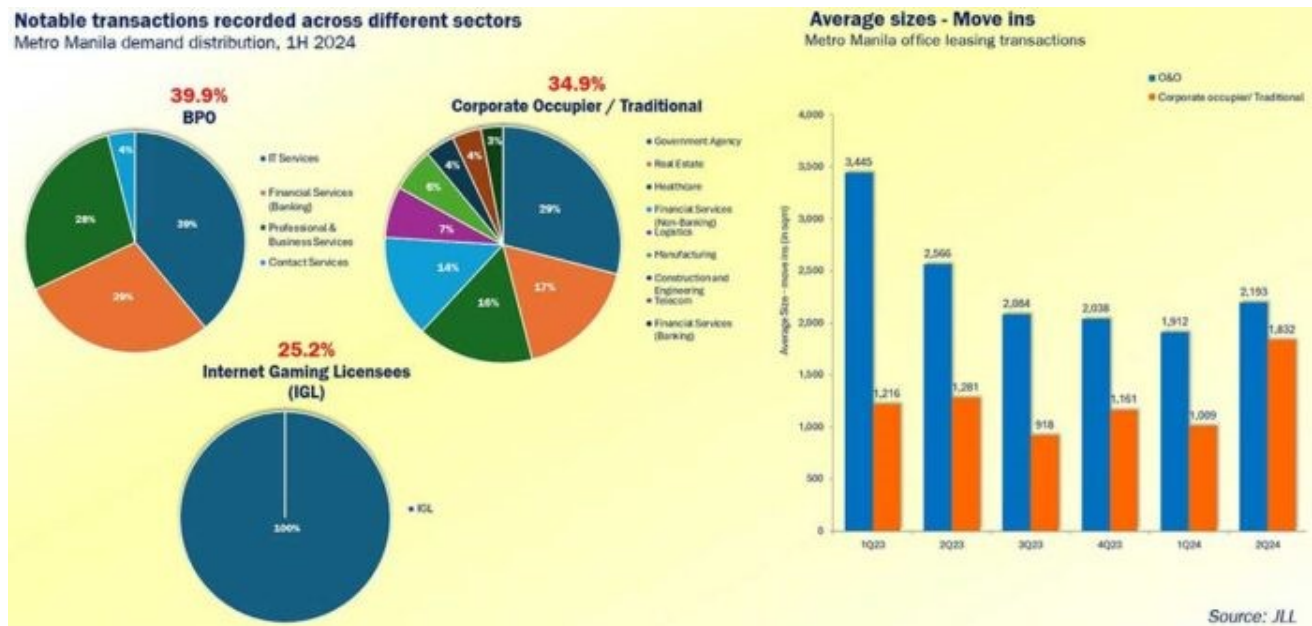
그는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내각에서 일한 시간이 “특별한 특권이자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스크왈에 따르면, DTI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경험”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Source: <https://newsinfo.inquirer.net/1967985/pascual-resigns-as-trade-secretary>

BPO와 기업들이 POGO 공간을 인수할 예정

August 01, 2024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업체와 전통적인 기업들이 필리핀 오프쇼어 게임 운영(POGO)으로부터 비워질 사무실 공간을 인수할 것이라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 JLL 필리핀은 전했습니다.

“(개발업체들은) 현재의 세입자들을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BPO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BPO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JLL 연구 책임자인 Janlo delos Reyes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BPO가 시장을 주도해왔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도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Delos Reyes는 POGO의 사무실 시장에서의 이탈이 전체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비워질 공간의 크기가 “상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파라냐케 시와 파사이 시의 임대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POGO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OGO의 수는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팬데믹 동안 일부가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라고 Delos Reyes는 말했습니다.

Delos Reyes는 파라냐케와 파사이의 사무실 공간 임대료가 높은 공실률, 세입자 변화, 그리고 수요 감소로 인해 제곱미터당 1,000 페소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ont. page 4]

BPO와 기업들이 POGO 공간을 인수할 예정

[Cont. from page 3]

Delos Reyes에 따르면 파라냐케와 파사이의 임대료는 현재 “1,000 페소 이상”입니다.

“사무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BPO 세입자나 기업이라면 시장에서 많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카티나 본리파시오 글로벌 시티가 선호하는 목적지일 수 있고, 분산된 지역을 원하면 케손 시티나 베이 지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JLL은 올해 상반기 동안 사무실 공간 임대료가 지속되었으며, 383,318 제곱미터를 기록하여 지난해의 327,848 제곱미터에 비해 16.91%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의 대부분은 마카티와 타기그 시에서 기록되었으며, 타기그는 18.5% 증가하여 75,101 제곱미터를 기록했고, 마카티는 32.6% 증가하여 68,270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BPO 운영이 상반기 전체 임대의 39.9%를 차지하며, 그 뒤를 기업 및 전통적인 세입자들이 34.9%로 따랐습니다.

JLL은 상반기에 이전된 공간이 142,371 제곱미터로 완화되었으며, 지난해의 191,469 제곱미터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실률은 1분기 20.2%에서 2분기 19.5%로 감소했으며, 임대료는 여전히 안정된 상태라고 JLL은 전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bpos-corporates-to-pick-up-pogo-spaces/

필리핀, 태풍 중 주식 거래 지속할 준비 미비 — 분석가들

August 01, 2024 | Revin Mikhael D. Ochave | BusinessWorld



Residents waded through floods in Quezon City, July 24, 2024. — THE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필리핀은 태풍 동안 지속적인 주식 시장 거래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가들이 전했습니다.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AP Securities, Inc.의 연구 책임자 Alfred Benjamin R. Garcia는 BusinessWorld에 보낸 Viber 메시지에서, 악천후 속에서도 주식 시장 거래를 계속하려면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결 속도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태풍 동안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인이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Garcia 씨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증권 거래소(PSE)는 태풍 카리나(국제 이름: Gaemi)와 남서 몬순으로 인한 폭우로 인해 지난 주 수요일에 시장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상하이와 선전의 주식 시장이 악천후 중에도 거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강한 태풍 신호가 발령될 때 주식 거래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9월 23일부터 홍콩 증권 거래소는 태풍 중에도 거래를 계속하여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약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콩과 상하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제 금융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시장에서 외국 참여 수준을 고려할 때, 위험과 보상의 균형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Garcia 씨는 다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질문을 받은 후 말했습니다.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경제학자 Michael L. Ricafort는 악천후 중에도 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재와 기타 거래 관련 프로세스는 전자 채널을 이용하여 자동화되어야 하며, 악천후 중에도 방해를 최소화하고 거래를 계속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Ricafort 씨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천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과 전 세계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5]

필리핀, 태풍 중 주식 거래 지속할 준비 미비 — 분석가들

[Cont. from page 4]

Philstocks Financial, Inc.의 연구 및 참여 책임자 Mikhail Philippe Q. Plopenio는 Viber 메시지에서 강한 폭풍 중에 PSE가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PSE는 여러 기관과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 중 거래를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PSE는 원격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보안 및 기술 발전에 집중하는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주요 금융 허브 중 하나인 홍콩과 비교했을 때, PSE는 이 지역의 신흥 시장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증권 거래소는 상장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 자금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등 다른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Garcia 씨는 또한 악천후 중에 주식 시장 거래를 시행하는 것은 거래자와 직원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한의 날씨에 거래자와 백룸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게 되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지난 주) 주요 도로가 침수되고, 우리 기차 네트워크가 모든 지역을 서비스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BusinessWorld는 이 문제에 대해 PSE의 의견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corporate/2024/08/01/611509/phl-not-ready-to-continue-stock-mart-trading-during-typhoons-analysts/>

미국 여론이 어떻게 되든,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가까운 미래에 보이지 않는다 — AmCham

July 31, 2024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미국과 필리핀 간의 무역 관계가 미국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리핀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Philippines, Inc.)는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가까운 미래에 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AmCham 필리핀의 전무이사 Ebb Hinchliffe가 수요일 AmCham의 총회 회의 중 BusinessMirror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Hinchliffe는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바이든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Hinchliffe는 트럼프는 양자 간 거래를 선호하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양자 거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트럼프 하에서 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라고 Hinchliffe는 덧붙였습니다.

Hinchliffe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대화가 없습니다. 양보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점에 대해 매우 엄격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Cham 관계자는 필리핀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Hinchliffe는 말했습니다.

한편, 무역산업부 장관 알프레도 E. 파스크왈은 같은 행사에서 무역 차관 세페리노 S. 로돌포가 전달한 연설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시장 접근 선호를 확보하고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돌포는 BusinessMirror에 필리핀 무역 관계자들이 미국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으며, 새로운 행정부 하에서도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Cont. page 6]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steps on stage at a campaign event in Manchester, New Hampshire, January 20, 2024.

미국 여론이 어떻게 되든,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가까운 미래에 보이지 않는다 — AmCham

[Cont. from page 5]

지난주 영국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는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산 상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또한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인 10% 관세를 제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돌포는 “타겟이죠. 가장 높은 무역 적자를 가진 나라들, 예를 들어 중국은 약 3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고, 베트남은 1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 전혀 근처에 있지 않죠”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필리핀의 수출 수익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49억 2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올해 5개월 동안 필리핀의 미국 수입액은 34억 1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 타르프 위원회 위원 조지 N. 만자로는 BusinessMirror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필리핀에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필리핀은 우대 세율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TA가 없는 다른 미국 수출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만자로는 강조하며, 필리핀은 미국에 대한 상품 순수출국임을 언급했습니다.

Image credits: [AP/Matt Rourke](#)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7/31/however-us-polls-go-fta-with-phl-not-seen-in-near-future-amcham/>

국회,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승인

August 01, 2024 | RG Cruz | ABS-CBN News



마닐라 — 상원과 하원 모두 디지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은 7월 30일 하원 법안 4122와 상원 법안 2528을 조정한 양원 합동 회의 보고서를 비준했다고 하며, 상원은 전날 동일한 보고서를 비준했습니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셔윈 가치알리안은 동료들에게 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법안의 주요 목표는 필리핀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서비스의 판매, 교환, 바터에 대한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부가가치세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또한 BIR의 디지털 서비스 및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정된 버전의 조항 중 하나는 간소화된 요건으로 디지털 판매 또는 상업 송장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은 부가가치세 조항을 위반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BIR 위원장에게 부여합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든 전통적 서비스 제공자든 법 위반의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치알리안 위원장은 “우리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거주자든 지역 거주자든 우리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한 세금 정책 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는 필리핀에서 소비되는 경우 필리핀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부가가치세를 평가하고 징수하며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e-마켓플레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미디어 및 광고, 온라인 플랫폼 또는 디지털 상품을 포함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e-마켓플레이스는 특정 조건 하에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비거주 판매자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안은 법안이 법으로 제정된 후 5년 동안 창의 산업 개발을 위해 증가된 수익의 5%를 배정합니다.

법안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서명을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Source: <https://news.abs-cbn.com/business/2024/8/1/us-fed-s-powell-flags-cuts-as-soon-as-september-915>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How can the technology that has shaped our world, now save it?

Business has the power to harness data and technology to create value for business, society and the planet.

Value-led sustainability is everybody's business. Make it yours.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